



마음을 나누어 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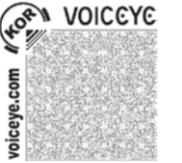
정기후원 문의 02.880.0868

자원봉사 문의 02.880.0866

빛을 주는 실로암

이웃을 내 몸 같이.





제호 격월간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5년 2월 26일 통권 118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배지혜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151-84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 880, 0500 FAX 02, 887, 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s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 2275, 6960

12+01
 December January

사랑은, 나의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이다.
 먼 훗날 한숨지으며 내 살아온 동안을 돌아볼 때
 ‘아, 내가 진정으로 살았구나’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 시간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그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_박노해, 다른 길



Contents



04 포커스
 소통, 공감, 축제의 장 '2014 자원봉사자 감사의 밤'



06 새소식 ①
 개별맞춤형 운동공간으로 변신 '복지관 헬스장 재오픈'

07 새소식 ②
 은빛 설원에서 펼쳐진 '2015 시각장애인 스키캠프'

08 희망나눔
 나는 오늘도 희망을 연주합니다_ 이상엽 님

09 사랑나눔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_ 서울대학교 이웃사랑

10 해피스토리
 사진으로 보는 12월~1월 사업 현장

14 문화산책
 문화를 파는 도시 '파주 출판단지'

16 정보&이슈
 제도와 마음의 장벽을 허물다 '배리어프리'

18 미리보기
 3, 4월 행사 안내

19 나눔플러스
 후원안내



소통,
공감,
축제의 장

2014 자원봉사자 감사의 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지난 12월 5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감사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 해 동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주신 약 70여 명의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으며,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도 함께 자리해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014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돌아보다

2014년 자원봉사자 감사의 밤은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을 소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가 진행되었던 각 팀의 팀장과 담당자들이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자원봉사자를 맞이하고, 그간의 봉사과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2014년 복지관 경과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2014년 동안 진행된 복지관의 굵직한 사업들을 소개하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장 내 스크린에 집중하며 한 해 동안 복지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대표해 김미경 관장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미경 관장은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자리를 통해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표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말하며 "봉사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봉사와 관심이 있었기에 복지관을 찾을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한해를 보낼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사와 소통으로 하나 된 시간

이어 자원봉사자들은 2014년 자원봉사 활동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보며, 사랑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의 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배장판사업과 건강걷기교실, 시각장애인 등산교실 및 여름캠프 등이 화면

에 비치자 봉사자들은 당시의 모습을 떠올랐는지 함께 지리한 복지관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상이 꺼지자 최승혜, 민숙희, 염성자님이 무대에 올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맘파워 프로젝트 맘(mom)편한 세상에 꾸준히 참여한 민숙희님은 "오감만족 책놀이와 독서도우미 파견 사업을 통해 아이의 읽기 욕구와 호기심 해소에 도움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아이의 독서교육을 맡게 되어 큰 힘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 개인(마영수 봉사자님, 정지현 봉사자님)과 우수자원봉사 단체(한유에너지, 미래에셋 감사하는 봉사단, 큰은혜교회)를 선정해 상패와 선물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마영수님은 "자원봉사는 남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일"이라 말하며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을 섬기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유에너지 김장주 이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나눔을 실천한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개별맞춤형 운동공간으로 변신 복지관 헬스장 재오픈



복지관 헬스장이 지난 12월,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기존 헬스장을 리모델링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공간으로 탈바꿈하였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처방실'을 따로 뒀던 운동처방 및 건강 상담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지관 헬스장을 이용하시면 운동처방실에서 인바디 검사를 거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근력과 부위별 체지방 지수 등을 측정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운동을 추천받게 됩니다. 즉, 체형 분석에서부터 건강 상담, 그리고 맞춤 운동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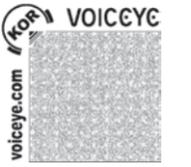
신체 부위별 운동기구가 재배치된 점 역시 눈에 띄니다. 기존에는 상체와 하체 운동기구가 섞여있었는데요, 헬스장을 새롭게 단장하며 이용자들의 이동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체와 하체 운동기구를 한데 배치했으며, 이로 인해 내부의 여유 공간이 더욱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아울러 냉난방시설을 새롭게 교체하는 등 내부 환경 역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 개별 맞춤형 운동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헬스장,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최재실 님(헬스장 이용자)
"운동처방실이 생겨서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저에게 알맞은 운동을 추천받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기철 님(헬스장 이용자)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어 운동할 맛이 납니다. 특히 상하체 운동기구가 나뉘어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할 것 같네요."

은빛 설원에서 펼쳐지는 2015 시각장애인 스키캠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겨울철 활동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 스키캠프'를 개최합니다.

스키가 겨울철 스포츠로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불편함과 전문 강사 부재 등을 이유로 시각 장애인들은 스키를 비롯한 겨울스포츠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복지관에서는 매년 겨울, 강원도 일대의 스키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키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키캠프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시각장애인 15명과 자원봉사자 15명 등 총 33명이 함께 신나는 체육활동 시간을 가질 계획인데요, 특히 한국대학스키연맹 자원봉사자들이 강사로 나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스키 강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가자의 수준을 파악해 초급, 중급, 고급으로 조를 나눠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효율적인 1:1 밀착지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스키캠프를 통해 초급 참가자들은 장비 착용, 넘어졌다 일어나기, A자로 멈추기 등을 배우며, 중급은 S자 턴과 턴 후에 11자로 모으는 법 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상급은 11자 모아타기(패러렐 턴)와 엣지를 이용한 턴(엣지 턴) 등을 교육받으며 2박 3일간 목표했던 스키 실력을 쌓을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1급 시각장애인 조종석 님(39)은 "우수한 강사진들 덕분에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올해를 시작으로 다음번 스키캠프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중호 님(34)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스키를 비롯한 겨울 스포츠는 비장애인들만의 여가활동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이번 스키캠프를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01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의 체력증진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스키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겨울스포츠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좋아합니다.

주변에선 많이들 물어봅니다. 보이지 않아 악기를 다루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나는 대답합니다. 아주 많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늘 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큰 끈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마도, 지난 세월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나는 오늘도 희망을 연주합니다



복지관 이용자 이상엽 님

음악으로 행복했던 유년시절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일반학교를 다녔습니다. 유행성결막염으로 고생을 했지만 친구들과 활동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약 부작용으로 녹내장이 오면서 서서히 왼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치료와 수술을 반복해 약시로는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맹학교로 입학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현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내면의 갈등이야 왜 없었겠나만, 상황을 인정하기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맹학교에서 생활하며 내 인생을 바꾸어놓은 음악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나의 노래 안에 담긴 다양한 악기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심장이 쿵쿵거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무작정 어쿠스틱기타부터 집어들었고 일렉기타와 베이스기타 그리고 드럼까지 자연스럽게 섭렵했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을 쌓은 덕분에 90년대에는 밴드활동도 했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 레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늘 있었지만, 내 삶은 음악과 함께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양쪽 시력을 모두 잃고 시작된 제2의 인생

그러던 중 2006년, 안구내염이 생겨 오른쪽 눈까지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 긍정적이던 제 모습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더군요.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2년 가까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첫 방향이었지요. 다행히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문득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2009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입니다. 처음에는 수영강습을 신청하기 위해 갔지만,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 골프, 스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력을 키웠습니다. 더욱이 나와 비슷한 시각장애인들을 만나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더 큰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공부도 계속해나갔습니다. 다른 나라의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스페인어와 중국어 회화 수업을 들었을 정도니까요. 이런 열정에 힘입어 2009년에는 복지관 소속의 시각장애인 밴드 7.1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복지관 프로그램의 열렬한 이용자이자 기타와 드럼교실의 인기 강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지관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이용자들을 만날 때 나는 더욱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악기를 가르치는 강사이지만 동시에 이들의 불편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라 말하고 싶네요. 나에게겐 꿈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음악교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통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장기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음악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악기 연습과 음악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지금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연습합니다. 그렇게 꿈을 좇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서울대학교 이웃사랑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꾸준한 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일시적인 나눔도 물론 필요하지만, 단 한 번에 그친 나눔은 오히려 공허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자원봉사센터 '이웃사랑' 인데요. 이웃사랑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저소득시각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 지는 것'이라 고백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행보,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우리별 학생(22세, 이웃사랑 자원봉사자)

"친구의 소개로 올해 처음 참여하게 됐어요. 행사 당일 아침에 만나 조별로 산타와 보조선타, 루돌프 역할을 정하고 연습했는데요. 처음이라 많이 어색했지만, 다들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 동화되어 저 역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또 방문한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해서 찾아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참여할 거예요!"

정지호 학생(23세, 이웃사랑 자원봉사자)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선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이벤트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본 이벤트에 꾸준히 참여해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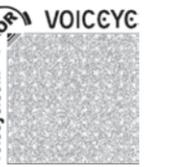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드립니다

서울대 이웃사랑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부터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시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아동의 제한으로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잊지 못할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이를 위해 행사 당일 아침 이웃사랑 자원봉사자들과 복지관 직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4년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벤트의 주제는 '산타의 깜짝 방문!' 본 미션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산타 복장을 한 학생과 루돌프 뿔을 쓴 학생 30여 명이 한데 모여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진짜 산타가 방문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대본을 짜서 연습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밖에도 캐롤과 한 몸이 되어 즐겁게 율동 연습을 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할 선물과 케이크를 챙기며 크리스마스카드까지 손수 작성하는 등 진심을 담은 준비과정으로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나눔은 함께 행복해 지는 것 아닐까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산타들의 깜짝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난데없는 등장한 산타와 루돌프 때문에 아이들은 하나같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캐롤에 맞춰 귀여운 율동을 선보이고, 직접 쓴 크리스마스카드와 선물을 전달하자 이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특히, 준비해간 플라로이드로 하나밖에 없는 가족사진을 찍어주자 곁에서 이벤트를 보고 있던 부모님들의 얼굴에도 열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일까요? 2014년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연습과 방문을 반복해 피곤할 법도 한데, 이벤트 후에도 이웃사랑 자원봉사자들에게서는 지친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 아쉽다,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행복해지더라"와 같은 따뜻한 후기들만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시각장애 가정을 대상으로 한순간 반짝이는 나눔이 아닌 8년째 같은 이벤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조력자 '이웃사랑'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꾸준한 나눔 활동이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 가정의 자녀와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러 왔는데 함께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이웃사랑 자원봉사자들,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의 다음 행보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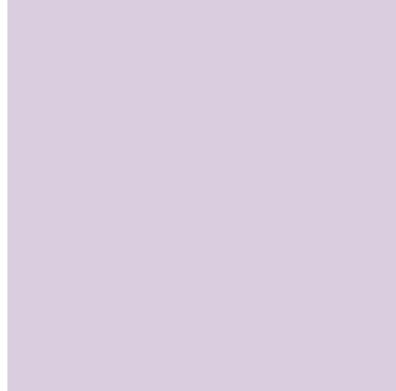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01 관현맹인전통예술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_12월 2일
관현맹인예술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예술이 빛나는 밤에' 행사에 초대되어 공연을 하였습니다.
- 02 2014 활동지원사업 3자대표 간담회_12월 2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 활동보조인, 직원이 함께 3자 대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03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서울시 문화상 수상_12월 4일
관현맹인예술단의 변종혁 감독이 제63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04 제6차 학부모 독서특강_12월 4일
<맛있는 독서토론 레시피>의 저자인 김소라 강사님을 모시고 '꿈'을 주제로 한 학부모 독서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05 제1, 2차 북 콘서트_12월 9일, 16일
실로암점자도서관은 고정욱 작가와 김학중 시인을 초청해 제1, 2차 북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 06 경남 안마수련원 이동 직업평가_12월 10일
직업평가센터에서는 경남 안마수련원생들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및 신체능력 평가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07 2014 활동보조인, 근로장애인 송년회_12월 11일, 21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 중인 활동보조인과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2014년 송년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08 음악재활, 전통음악 아카데미 수료식_12월 12일
30여 명의 교육생들과 20여 명이 되는 강사 및 담당자들이 한해의 사업을 돌아보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09 외국어회화교실 총평가회_12월 16일
회화교실 전체 수강생이 모여 그동안 배운 기량을 발표하고 한해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



11



18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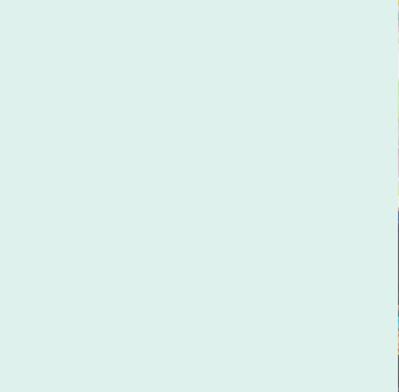


12



16

- 10 신한은행, 카페모아 기부금 전달식_12월 18일
신한은행의 직원들의 만원 나눔 기부로 총 5,000,000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습니다.
- 11 행복한 크리스마스_12월 22일
산타복장을 한 봉사자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저소득시각장애 가정 30곳을 방문 해 공연을 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12 몸으로 책임가-책 누나 프로젝트 연계_12월 8일, 22일
한국학생점자도서관에서는 시각, 비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전래동화를 들려주며 몸으로 책임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 13 2014 직원송년회_12월 23일
2014년 직원송년회에서는 우수직원 상상을 비롯하여 장기자랑 및 다양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14 2015 직원연수_1월 7일~10일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로암 전체 직원들이 모여 2015년 사업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5 2015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대식_1월 2일(금)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복지관 강당에서 2015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대식을 실시하였습니다.
- 16 시각장애인 점역·교정사 양성훈련 1기_1월 5일~4월 27일
장애인 점역·교정사 양성훈련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각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 17 관현맹인전통예술단 특강_1월 30일(금)
예술단원들이 인터뷰 화술법을 배우기 위해 SBS 아나운서 김범수 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18 요양원 사회체현의식_1월 21일(수)
요양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백석음 흥축리에 위치한 맛집을 방문하여 자랑면과 탕수육 등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2



12



15



13



13



17



문화를
파는
도시

파주출판단지

‘출판’을 떠올리면 고유명사처럼 따라붙는 ‘파주출판단지’. 이곳은 1989년,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를 꿈꾸던 출판인들이 모여 조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시대를 앞선 건축물들이 하나들 들어서면서 복합문화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데요. 실로 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도 ‘문화산책’의 장소로 파주출판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책을 만들고 문화를 일구는 파주출판단지의 면면을 소개합니다.

복합문화공간 ‘파주출판단지’

파주출판단지에는 현재 출판사만 200여 개가 포진해 있습니다. 약 1만여 명의 종사자들이 250여 개의 출판관련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명 ‘책마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은 애초 출판의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기획되었으며, 뜻 있는 출판인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출판단지는 크게 출판사·인쇄소·제본소가 있는 생산지구와 서점·도서관·유통창고·은행이 있는 유통센터, 그리고 전시장·박물관·출판연구소가 있는 문화센터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로 나뉩니다. 이곳의 출발은 출판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출판에만 집중된 공간은 아닙니다. 갈대셋강과 습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 친환경 생태도시이자, 한국의 건축문화를 바꾼 건축도시이기도 하죠. 또한 이정표 하나에도 디자인적 가치를 부여하고, 각 출판사마다 책방을 운영하며 ‘책과 사람,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식창고 ‘지혜의 숲’

이곳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혜의 숲’인데요. ‘지혜의 숲’은 365일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입니다. 서가 길이 3.1km, 수장 도서 50만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모두 기증 도서로만 이뤄져 있습니다. 사서를 두는 대신 자원봉사자 권독사들이 이용객들에게 책을 안내하고 추천하는 게 눈에 띄니다. 특히 ‘개인 기증자 코너’가 인기가 많은데, 최대 8m에 가까운 서가 사이를 걸으면 마치 책 숲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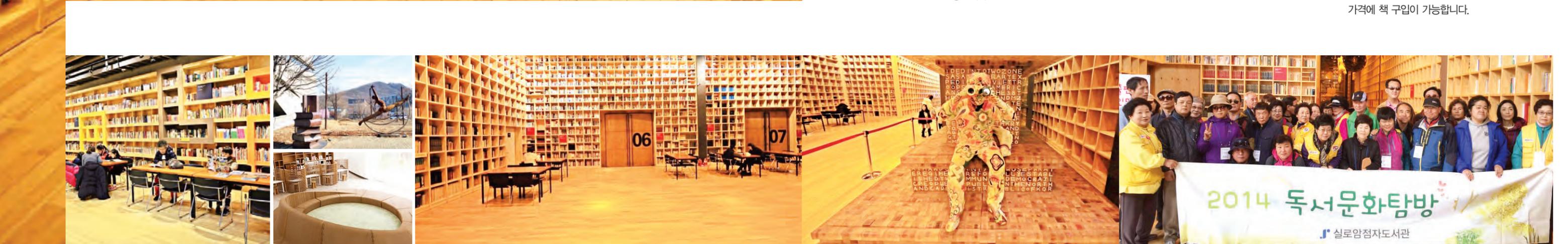
특히 이곳은 단순히 책을 열람하는 곳이 아니라 이용객들끼리 자유롭게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매주 인문학 북콘서트 등 각종 문화행사가 이뤄지며, 독서 예절을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독서 운동에 앞장서기 때문에 신개념 도서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주출판단지 100배 즐기기

● 파주 북소리 축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책 축제로 전시, 공연, 국제행사, 강연,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수십만 독자가 함께 토론하고 즐기는 지식 유희의 장입니다. 매년 10월 경, 파주에 등자를 튼 70개 이상의 출판사가 참여하며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가람도서관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설립된 가람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공공도서관입니다. 4천6백여 점의 멀티미디어 자료와 1만6천9백여 권의 음악 서적을 갖추고 있으며 도서관 내에 위치한 3백석 규모의 솔가람아트홀에서 다양한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이곳에는 다양한 북카페, 헌책방, 갤러리, 레스토랑 등이 모여 있습니다. 열화당, 비룡소, 다락원, 문공사 등 출판사 건물 1층에 책을 판매하는 ‘북숍’과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출판사 별 성향이 확연히 드러나는 각 공간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책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도와 마음의 장벽을 허물다

계단 오르기, 문턱 넘기, 영화 보기. 힘들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비장애인들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영역이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는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회에서 감지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운동입니다.



'배리어프리'



Barrier-Free



장애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세상

1974년 건축학 분야에서 배리어프리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그 의미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택과 공공시설의 문턱을 없애는 운동부터 전개했는데요. 이후 세계 곳곳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로는 배리어프리의 의미가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차별과 편견의 벽을 제거하는 인식개선의 범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 문화의 한 영역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흥행된 한국 영화들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되는 것을 볼 때 그 변화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 이렇게 만들어져요

"1978년 부산, 달리는 시내버스 뒷좌석에 30대로 보이는 우석이 군청색 양복을 입고 앉아 있다. 버스 안 내장이 차체를 두드린다. 곧 버스가 멈춰서고 우석이 박카스 상자를 챙겨 버스에서 내린다."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입니다. 원작 영화에서는 대사 없이 카메라가 27초간 우석의 행동을 비추지만 배리어프리 버전 영화에서는 우석의 행동과 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레이션이 쉼 없이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사 사이사이에 목소리 화면 해설을 넣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려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배경 음악과 효과음까지 모두 들어간 자막(대사자막: 화면 하단에 가로, 설명자막: 화면 좌측에 세로)을 첨가합니다.

2011년, 한국영화 최초로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된 <블라인드>는 시각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컸는데요. <블라인드>의 안상훈 감독은 "장애인을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화면 해설 영화를 통해 감상의 장애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기를

사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 아이, 정신지체장애인, 노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장애인들에게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뜻을 지지하는 의미로 한 번씩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개봉되는 영화의 극히 일부분만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되는 실정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배리어프리 영화는 초기단계라고 하네요. 하지만 매년 관람객도 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제의 시기에 화제의 영화를 시청각 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장벽을 없애주는 배리어프리 영화. 앞으로 더 많은 영화와 문화공연들이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욱 깊게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배리어프리버전 영화



※ 자료제공: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Program

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고적답사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문화유적 및 명소를 방문합니다.

- 일 시 : 3월 중
- 장 소 : 서울·경기도 인근 고적지
- 문 의 : 문화체육지원센터 02-880-0832

생활체육 및 여가프로그램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활체육교실 및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일 시 : 3월 2일~6월 30일
- 프로그램 : 골프, 댄스스포츠, 등산, 볼링, 수영, 야구, 요가, 탭댄스, 텐덤바이크, 플라잉디스크, 건강걷기, 사진교실
- 문 의 : 문화체육지원센터 02-880-0833

시각중복장애아동 재활지원프로그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중복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재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부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3월 중 개강
- 장 소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교육실
- 문의사항 : 가족지원센터 02-880-0601~7

시각장애청소년 대상 희망나눔교실

시각장애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및 청소년 문화체험, 여름캠프 등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3월~12월
- 장 소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교육실 및 해당 장소
- 문 의 : 가족지원센터 02-880-0605

Notice

알려드립니다

2015 시각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연대감을 갖고 화합할 수 있도록 체육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4월 25일
- 장 소 : 국회 운동장
- 문 의 : 지역사회지원센터 02-880-0824

2015 1회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필기/실기시험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이 보다 원활하도록 시험 접수 대행 및 시각장애인 전용 고사정을 제공합니다.

- 일 시 : (필기) 3월 7일, (실기) 4월 18일
- 장 소 : 복지관 3층 교육실
- 문 의 : 정보기기지원팀 02-880-0543, 0545

2015 인터넷 정보 검색 대행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 검색 대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대 상 :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어려운 독거, 중증 등록 시각장애인
- 이용시간 : 매주 월, 화, 목, 금 13:00~17:00
- 접 수 : 자립생활센터 02-880-0815

맞춤형 금융상담 서비스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제적인 자립생활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자 금융상담을 실시합니다.

- 대 상 : 금융상담 및 재무 설계에 관심 있는 등록시각장애인
- 이용시간 : 1월 ~ 11월 상시 접수
- 접 수 : 자립생활센터 02-880-0815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2-139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개인수술지원

하나은행 577-910005-380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8-121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CMS 정기자동이체 신청

전화문의 홍보팀 02-880-0868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

| 구분 | 복지관 후원 | 개인수술후원 | 실로암요양원후원 | 복지회후원 | 총액 |
|-----|------------|-----------|-----------|------------|------------|
| 12월 | 38,571,150 | 2,445,245 | 5,169,496 | 13,181,847 | 59,367,738 |
| 1월 | 20,851,940 | 9,025,000 | 2,027,970 | 1,481,000 | 33,358,910 |

후원자명단

복지관 후원

강미혜 강창규 강현희 강희원 고선용 고선화 고지후 곽현용 곽혜영 권수진 권승혜 권정홍 김경국 김규남 김다혜 김미경 김미선 김미정 김보영 김보정 김선주 김성찬 김성훈 김세영 김소정 김소희 김 수 김숙현 김영준 김유리 김은실 김은철 김이주 김잔디 김재훈 김중규 김주리 김 준 김준영 김현도 김현정 김혜미 김혜인 김호남 나병택 남우현 남정환 노계정 노성은 당화정 도유희 명태순 문홍수 민광기 박고심 박남수 박대삼 박미랑 박민규 박세근 박세희 박옥련 박은애 박정복 박종원 박지영 박지훈 박하니 박현수 박혜림 배중석 배지혜 변중혁 봉하중 서의승 서희경 성명숙 성지혜 손지영 송경원 송은숙 송정숙 신도선 신성만 신영석 신종현 신준우 신혜경 신홍연 심재민 안연광 양호열 엄현희 염리라 오승범 오주연 오자수 오태훈 우재연 유금옥 유미현 유자영 윤나라 윤성재 윤소정 이광성 이길원 이나연 이동형 이로사 이루미 이민환 이봉희 이상현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아 이 송 이운선 이은정 이인에 이재희 이정원 이정민 이주호 이자선 이지훈 이진용 이진중 이창현 이창현 이한미 이해현 이화정 임은성 장선희 장성자 장수진 장용전 장은경 정다운 정미실 정민지 정성두 정성민 정중일 정지혜 조남주 조몽근 조미경 조봉래 조은하 조행금 주재은 천은선 최경록 최동미 최병현 최중철 최진수 최태선 하은주 한승진 함요한 함지연 함주영 허승희 홍성현 홍예진 관악신탁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동화기업 무학교회 바타루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 세월리코리아 실로암안과병원 하나은행(봉천역) 한국주류산업협회 해피빈

개인수술 후원

고지환 김광한 김애경 김연영 김혜순 박상금 백재은 이동원 이상훈 이성문 정연우 정인영 정항산 동부산교회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주)자이스텍

실로암요양원 후원

김동희 김무경 김복희 김선태 김영민 김유나 김유빈 김인경 김정숙 김태연 나병택 박고심 박옥련 박은애 박주희 배예은 백하정 서문섭 성옥순 심아름 안교만 안정임 어숙경 엄순희 오태훈 이금선 이민희 이봉희 이수란 이숙경 이영태 이진용 정용훈 조미경 조영순 지정규 함지영 함현식 홍복례 신한후원 실로암안과병원 알파문구 우리은행 지엘엠세미노콘(주) 창 조교회 효명교회

복지회 후원

강동희 권수진 권영진 권효진 금융연 김경애 김경진 김남식 김미경 김미라 김미정 김미혜 김민주 김민혜 김보영 김서진 김성훈 김아름 김애경 김유빈 김정래 김정옥 김중규 김주연 김현석 김현정 나병택 남정환 노하연 노현기 도규상 맹석재 박상근 박성철 박옥희 박현주 박희영 서범수 신영실 심아름 양미나 여성은 우민재 우재연 유은분 유준호 윤재훈 이도건 이미숙 이민정 이상정 이석주 이성표 이윤아 이창진 이창현 이하나 이화로 이행철 임 영 임영희 전선영 전영옥 정대영 정정자 정중일 정철식 조경자 조행금 최동익 최상국 하미진 허남규 허승희 황윤희 도너도넛 통일교회 복수원은천 월드비전교회 해피빈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